



포스터 촬영장에서 만난 아름다운 얼굴 우주인 이소연

글_ 박연숙(본지기자)

2008년은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의 진일보를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해이다. 한국인 이소연 씨가 러시아발 소유즈 우주선 우주인 자격으로 탑승,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1일간 체류하며 18가지의 과학실험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주과학 분야에 활기를 가져왔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과 우주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2008년도 크리스마스 씬, 우주인 이소연 씨를 빼 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씬 홍보를 위한 포스터 촬영현장에서 이소연 씨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선 이소연 씨는 저녁식사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그는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색도하는 강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강연 요청이 많다고.

'우주인 이소연'은 학생들에게 대단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의 강의를 듣는 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우주과학의 미래는 밝다고 하면 확대해석일까? 어쨌든 그러한 관심이 소중한 씨앗이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 사람의 연구자에서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탈바꿈하기까지 겪었을 맘고생 몸고생도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하는 그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다들 많이 배려해주셨고, 훈련 과정을 즐겼던 것 같아요. 한국음식을 못 먹

는 게 좀 힘들었는데, 우주선을 타서는 오히려 김치도 먹고 그랬죠.”

기사에 따르면 우주생활 동안은 우주인용으로 제작된 밥, 김치, 라면 등을 먹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우주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그는 한동안 건강회복을 위해 입원을 해야 했다. 우주생활을 하면서 키가 자랐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물렁뼈가 늘어나 일시적으로 키가 크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 후유증으로 요통이 좀 생기긴 했지만요.”

촬영을 하는 동안 내내 이소연 씨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태권도 공인 3단이라는 이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종일관 곧은 포즈와 당당한 자세로 임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썸 홍보 포스터 촬영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 이소연 씨, 그에게 결핵은 어떤 의미일까?

“사실 결핵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봤을 뿐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20~30대 젊은 사람들도 결핵에 많이 걸린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썸을 샀던 기억이 나네요.”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썸과 더불어 전자파차단 스티커를 발행해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2008년을 기념하고 한국 우주과학에도 관심을 갖는 의미에서 탄생한 올해의 크리스마스 썸은 우주인 이소연 씨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